**대강절의 기다림, 그리고 기도**

<사도행전 1장 3-14절>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곳 체코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예수가 들고 온다고 믿는다지요? 얼마 전 시내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올해도 아기 예수가 또다시 선물을 들고 옵니다” 부모들에게 빨리 자녀들 줄 선물 사라는 얘기지요. 이 얄팍한 상술에 예수님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강절의 기다림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천 년 전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성탄의 기쁨은 요즘 이 프라하 거리를 메우고 있는 막연히 들뜬 분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강절은 그저 성탄절의 들러리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지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후 당신의 부활 사실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약 사십 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미래에 임할 ‘성령’보다는 현실의 ‘이스라엘’ 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때가 이제 무르익은 것입니까?”

이 시점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 왕국에서 한자리 차지할 욕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 마음 속의 애국심 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히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자, 어서 시작하시지요. 우리가 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라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이나 한 민족 안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 속에서 퍼져가는 나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상으로 흩어진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 증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능력있게 증거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홀연히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곧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잠시 제자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오로지’라는 표현 속에는 “지속적으로 그 일에 집중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전에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제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 약 백이십 명이 그렇게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얼른 다시 내려오시기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하늘로 올려지기를 구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두 번째 말, 즉 반응의 언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과 연관된 구약의 다른 말씀들의 뜻도 상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자신과 세상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들 자신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도와주실 보혜사, 즉 약속받은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무력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막막함의 표현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에게 기도는 또한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그 무엇보다 기다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그들이 모인 자리에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박해도 이 증인의 삶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주 안에서 한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증인들 속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능력있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며, 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 세상이 끝장나는 일로만 이해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동안 바라고 소망하던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할 때, 그는 이 두 번째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마음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의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불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솔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다려 왔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 설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이 최초의 신자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지만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모습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득채웠던 기도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사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인간 편에서 기여한 가장 위대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론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이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여행 중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또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데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회심한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에 보았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전도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를 다 들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영적 각성의 사건는 언제나 신앙 공동체에 기도가 회복되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19세기 인간중심적 선교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는 교회의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하나님과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진정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는 예언을 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마치 그의 기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확신에 찬 어조로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3-16)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무책임하고 실속없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조직신학자 스탠리 그랜츠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특정한 영역에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이를 O. 할레스비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의지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겔 36:36-37)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백성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를 알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스스로 철회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아버지와 따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리로부터 물러나시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늘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자원들로 사람들을 적절히 섬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어진 환경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그저 옆으로 비켜서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는 자원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18-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사 30:18-19)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모든 기도와 가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간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제게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해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없이 저희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